자기를 무시하는 것은 부처를 무시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들이 다 깨어나게 하고….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독일에 갔는데 말입니다, 난데없이 수녀 한 분이 들어왔어요. 나는 무식해서 역사도 뭐,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에 따라서 알게 되면 딱 알고, 하게 되면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삼백사오십 년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수녀인 것은 아는데 왜 나한테 왔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 싸움으로 인해서 독일 사람들이 삼분의 일, 어쩌면 반이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때에 자기들은 수녀로서 성당을 하나 조그맣게 해 놓고 일판에다가 세 개의 천막을 무지하게 크게 세워서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 치료를 했다 합니다. 치료를 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뭇사람들한테 봉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묻혔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뿐이 아니라 그 일판의 사람들이 전부 고문당하고 갇혀 있으면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 오셨으니 이 문을 다 열어 주실 순 없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나 가톨릭 법이나 사람의 근본은 둘이 아니야. 모두가 둘이 아닐진댄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쭈욱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퍼뜩 알아듣고선 부처님 모셔 놓은 데 가서 절을 삼배를 올리고 그 수녀는 옷을 벗어서 담 너머로 다 팽개쳤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마는 내가 그렇게, 군묘지를 처음에 시험을 해서 실천을 해 보고, 또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군묘지를 택해서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모두 운집을 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사람 하나하나 건지는 것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도 몸 하나를 건져야 그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이 다 살 수 있는 거지 몸 하나 건지지 못하면 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은 다 죽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공부를 해야만이 오고 가면서도 영령들에게 모두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영령들은 누가 자기를 이익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 그래서 발로 걸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빛보다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묘하니까 여러분이 오직 한마음에…, 한마음도 체가 없는 겁니다. 한마음에서 검부락지 하나를 일으켜 세운다 하더라도 지구를 들 수 있는 그런 태세라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관계상 여러분한테 간곡히 이날까지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내가 지금 지어 놓은 이름도 무식해서 모르고 내가 지으려니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더운 기가 압축이 되면 공기막이 터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되니까 그것을 높게 하면 얼음이 녹지 않고…. 또 지금 오염이 된다는 사실도 큰 문제죠. 중생들이 오염이 되게 하면 가차 없이 모두가 살림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걸 버려서 오염이 되나 했더니, 이번에 알프스산에 가서 보니까 케이블카가 올라가고 이러느라고 땅을 파고 쇳덩어리를 박고 이런 것부터 벌써 오염이에요. 이 모두가 오염이에요.

그건 왜 오염이 되느냐. 의사가 완전히 배워 가지고 수술을 할 때에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살을 각을 뜹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도 모르고 세포고 동맥이고 뭐고 막 끊고 쇠를 박으니 이게 오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 오염을 막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끊어진 세포를 잇고…, 하여튼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체가 없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그 오염을 전체 깨끗하게 막아 준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극이고 북극이고, 만년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북극에서 남극으로 통로가 돼 있다면 남극 바로 옆에, 아래 옆에 또 통로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 분비물이 다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비었죠. 지구가 비었다고 볼 수 있죠. 사람도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듯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비었는지 차 있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 보면 그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달도 비어 있지만 양극이 크게 구멍이 나서 연결이 되니까 양쪽으로 들이고 내고 하는 그 소통이 아주 정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팽창되지도 않고 너무 타 버리지도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이 잘되고 수명이 길게 되고 짧게 되는 것도 이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전체 우리 마음이 은하계에 결부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옛날에 이런 얘길 했다면 '저 스님 왜 저래?' 이럴까 봐 안 한 겁니다. 십 년 전에도 내가 한마디 웃으면서 한 얘기가 있죠. "야, 지구도 비었어. 달도 비었어.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야."라고요.

화성에도 사람이 살다가…, 생명이 없으면 공기가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대기권이 없어지고요. 그것은 모두가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체가 좀 살아나고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생명이 자라게 하려면 자라게 하고 또, 생명이 없어지게 하려면 없어지게 하고, 물이 생기게 하려면 생기게 하고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권을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자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은 부처를 무시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도 모르면서 그냥 죽을 수는 없죠. 죽는 게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새로 살림을 하자면 너무나 처참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항상 둘이 아니라고 했죠? 내 부모, 네 부모가 따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하면서 형성돼 올라왔고 진화돼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이름은 벌써 우주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거짓말 같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보이는 데 글자 쓰는 것만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미쳤다고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미쳤다고 하는 소리 난 뭐, 백 번도 더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외국으로 돌면서도 간곡히…, 삼백몇십 년 전만이 아니라 불로 죽고 하던 시대에 있었던 영가들도 그렇게 좋아서, 물에서나 어디서나 다 좋아서…, 폼페이인가 하는 거기도, 세 지역이 물이 이렇게 같이 돌아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그렇게, 우리 스님네들이 한 바퀴 도는데 전부 선처를 빌더랍니다. 그래서 다 해 주고 왔다고 합디다. 우리 스님네에게도 직접 그렇게 부탁을 해서, 어떤 때는 잠 한잠도 못 자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해 주고 끝내고 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죠. "그렇게 밤까지 샐 게 뭐 있니? 마음인데, 허허허. 이 종지의 물도 (법상 위의 컵을 가리키시며) 바닷물로 만들 수 있다. 마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한계가 없다. 그리고 과일도 이 세상 거를 다 갖다 놔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를 알고나 가야죠.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동시에 내 집을 길이길이 보존하게 함으로써 그 차원이 정말이지 높아져서 세세생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 사실도 또 덧붙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이렇게 물어요. "스님은 왜 우주떡 하나를 해 놓고 그렇게 천도를 하십니까?" 이러길래 "아, 평생에 살면서 한 평생만 아니라 수없는 겁을 내려오면서 먹고 벌고 파고, 그냥 입고 싸우고 죽고 이러면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를 면제해 주려면 아주 우주에다 집어넣어서 '너 마음대로 먹고 너 마음대로 해라.' 한다면 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空)한 줄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너지지만 충당할 줄 알면 그뿐인데 뭘 그렇게 그럽니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부처님 한 분 모셔 놓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 나는, 그 뼈저린 아픔으로 부처님 한 분 한 분 모셔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부처님 한 몸이 여러분의 몸도 될 수 있고 내 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정신계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공에 빠져서 물질계는 우습게 생각하는데,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자체를 보면 알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정신이 빠져도 육신은 송장이 되니 무효고, 또 정신계만 있으면 보이지 않아서 무효고. 그러면 어떡해야 옳을까요? 정신계와 물질계가 혼합이 돼서 둘 아니게 사셔야 정상이 아닙니까?

지금 이 우주에 관한 건도 말 못 할 문제가 너무도 많아서 말을 못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마음을 먹고 있으면 또 마(魔)가 들까 염려도 되죠. 그러나 이것은 귀신이든 사람이든 어떤 영가든 둘 아니게 다루는 멋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지마는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정말 저이가 성한 사람인가.' 이럴까 봐 더는 그 말을 못 합니다. 나중에 또 모르죠. 여러분이 그거를 집어넣고도 소화가 될 수 있다면 또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니 하면 안 되리만큼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 관한 건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네들의 천차만별의 차원의 종자가 얼마만큼 커져서, 아주 그냥 깎고 깎고 깎아 여기 하나도 붙지 않게 돼서, 마치 하늘을 닿게 할 수 있는 배나무가 누런 배 다섯 개를 달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가 무얼 먹고 삽니까? 무슨 생명을 뜯어 먹고 삽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꼿꼿하게 올라가서 우주를 삼킬 수 있는 큰 배들이 열렸는데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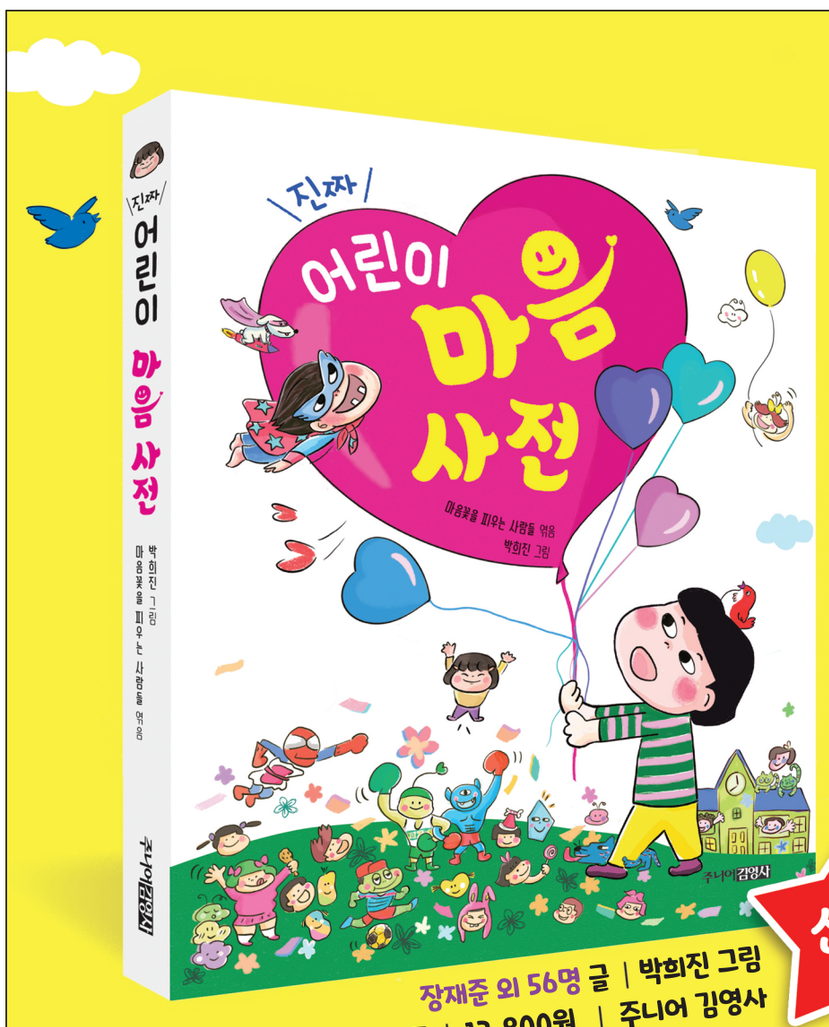
그래서 항상 그 나무들이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런 나무로서 화해서 등장을 하신다면 이 우주를 한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한 검부락지로 들어도 아마 잘 보존해서 들릴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그렇게 일을 한다면 무(無)의 수행자일 뿐만 아니라 무의 과학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나 유(有)의 과학자는 그렇게 들 수가 없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컵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를 보고선 저 물컵이 다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물컵을 보존해서 들어서 옮겨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이라도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이고 또, 보이는 데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모두 무에 또 입력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잠이 드나 일을 하나, 모든 것을 그놈이 한다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 까닭입니다. 여러분이 좋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건질 수 있는데 하나하나 오는 사람만 건지는 게 아니라 진화시키고 창조해서 모두를 다 건질 수 있어요. 그것도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이런 말 없이 그냥 묵묵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아예 우주에서 상을 받아요, 그냥.

소소한 일이라도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이고
보이는 데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모두 무에 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6년 11월 3일 법형제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월간 어린이잡지 「마음꽃」 인기코너
〈아무나 쓰는 이야기〉 모음집

우리가 잘 몰랐던
어린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까요?

장재준 외 56명 글 | 박희진 그림
144쪽 | 12,800원 | 주니어 김영사

신간!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
월요일에는 놀랴,
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
수요일에는 책 읽으랴,
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
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
-본문 중에서

인터넷 판매중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하세요.